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장간

우리에게 대장간은 이제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대장간을 볼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글썽...

많은 사람들이 용인의 민속촌 정도를 꼽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당당히 그 존재를 뿌리내리고 시민과 그 온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곳을 찾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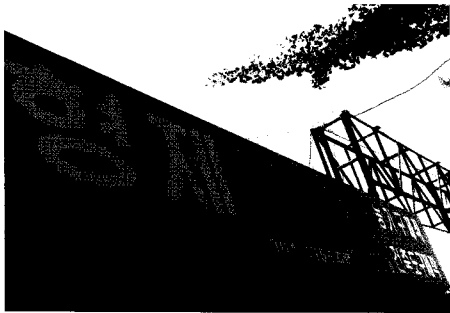
대장간의 불꽃과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보며 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2009년 기축년 대한민국 경제가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글/사진 • Willy기자



대장간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 류상준, 상남 형제.



형제대장간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빛바랜 간판이 눈길을 끈다.

서울에 있는 대장간? 그러나, 서울의 대장간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수색역 앞에서 길가는 사람 중 아무나 붙들고 대장간을 물어보니 대장간 이름까지 아주 친절히 가르쳐 준다.

한마디로 수색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형제 대장간은 이 동네 명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듯하다. 말로만 듣던 대장간에 도착해 문 앞을 서성

이는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대장장이 두 사람의 심기가 웬지 심란해 보인다. 어렵게 찾아 왔는데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 낭패여서 조바심을 내며 그중 어러보이는 대장장이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는 류상남씨로 형제 대장장이 중 동생으로 대뜸 다음과 같이 형에 대한 못마땅함을 불평한다.

“몇 일전 주문받은 물건을 완성해서 오늘 납품하려던 참인데 형 류상준씨가 납품하면 안 된다며 다시 만들고 있지 뭐니까? 물건 주문한 사람은 됐다고 만족 했는데 구태여 다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동생 류상남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형 류상준씨의 몸에 밴 투철한 직업관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한다.

“형님은 작은 호미하나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존경 인할 수가 없지요.” 요즘 이곳 형제 대장간은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어, TV, 잡



▲ 형제대장간의 두 형제가 만든 작품들. 모두 세상에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 수제 명품들로 이들 류상준·상남 형제의 흔이 스며들어 있다.
 ◀ 형제대장간의 류상준·상남 형제가 붉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다지고 있다.

지, 신문 등 인터뷰가 줄을 잇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물건 만드는 일에만 열중일 뿐 그런 것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가까운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집이 뒤에 바로 붙어 있는데 왜 밖에서 먹느냐”고 한사코 사양하는 소박하고 순수한 형제인 것이다.

형 류상준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쇠를 만지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근 40년간을 이일만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어릴 때 옆집에 박영감이라는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도 재미있어 보여 풀무질부터 배운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을 배운 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 곱은다리 근처 미나리짚이라 불리던 곳에서 가게를 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인수한 박영감 가게에 와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곳 수색에 대장간을 연지가 벌써 10여 년 전 일이라고 했다. 그간 다른 일을 하던 동생 상남 씨가 그때 이일에 합류 하게 되면서 상호도 형제대장간이라 정했다. 그동안 아이들도 잘 자라서 상남 씨의 두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모두 국악을 전공하고 있다. 대장장이 딸이 국악을 한다. 어쩐지 아귀가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 형제 대장간에서 만드는 것들은 주로 주문제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기구의 경우 주물로 만든 값싼 중국제가 시장을 휩쓸고 있어, 망치로 두드려 제대로 만든



▲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장간인 형제대장간의 형 류상진씨가 또하나의 수제 명품을 만들기위해 강철을 붉게 달구고 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주문생산품이 주류를 이루는 요즘도 그는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손님에게 절대 내주지 않는 고집으로 40년 대장장이 생활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다.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올 뿐이다. 그래도 고객 희귀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이곳 형제 대장간밖에 없는지라 별의별걸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몇 일전에는 고래 회 뜨는 칼을 주문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대략 회칼 비슷하려니 하고 그 크기를 물으니 마치 창과 같았다고 설명한다.

요즘, 류상준, 상남 형제는 자기들이 만든 것 중 희귀한 작품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일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나서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자고 해 그 뜻이 대견하긴 하지만, 대장간과 인터넷이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다고 쑥스러워 한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훌륭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들 형제는 오늘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이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곳은 철도청 부지로 수색역사가 지어지면 어디론가 옮겨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장소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들에겐 사명감과 장인 정신이 살아 있기에...

2009년에는 이들 형제가 자손대대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